인천시 민선8기 공약 완료율 10.8% 순항

10대 정책 120대 공약 등 이행률 자체 중간 점검

356개 사업 정상 추진…지난 7기 대비 5% 높은 수치

인천시 민선8기 공약 실천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민선8기 1년간의 공약 이행실적을 공유하고 부진한 사업은 신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약 이행률 점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과제 사업 중 356개 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43개 사업이 '완료' 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으로 공약사업 완료율이 10.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민선7기 같은 기간보다 5.1%p 높은 수치이며, 인천시가 당초 2023년까지 28개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것과 비교해도 153%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공약 발표 당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83개, 임기 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32개로 철도 및 도로 건설 등과 같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다. 사업 초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 초기 유정복 호의 공약사업 추진은 순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예산확보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계획 9조 1,150억 원 대비 예산 반영 예산액은 9조 869억 원으로 99.7% 반영률을 보였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집행액은 6조 2,607억 원으로 집행률도 68.9%에 이른다.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는 민선8기 1년 차에는 공약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설계해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면, 2년 차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민생 공약사업 중 관심 사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년간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주민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전면 시행,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확정, 인천 사랑 존경 인물 시민상 확대 등 인천 시민의 정체성 향상, 미래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공약을 달성해 민선8기를 속도감 있게 이끌었고 이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한 노력의 결과다.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지난 1년간 민선8기 공약은 매니페스토의 공약실천계획서 분야별 평가에서 '적정성'과 '투명성' 2개 분야에서 각각 SA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400개 실천 과제에 담은 '약속이행 노력도'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감소,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 등으로 향후 면밀한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정부와 시, 군·구 예산 매칭 사업이 많아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공약의 조기 이행과 함께 임기 내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이 실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지난 1년간의 공약 이행 실적은 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장실'에 공개된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도성훈 시교육감,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 간담회 발전 모색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 힘쓰겠다”

시민소통간담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시교육감이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과 간담회를 갖고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6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과 만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

시민소통참여단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은 서구(검암, 검단 제외)에 거주하는 42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정종혁 부위원장, 이순학 시의원, 김경애 서부교육교육장, 서구1 시민소통참여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구 지역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지속, 반복적이고 세밀한 성교육 실시 등에 대한 시민소통참여단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안사항을 경청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방학 중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힘들고 학기 중에는 선생님이 힘들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과제인 것 같다"며 "교육청 안팎의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에 귀 기울여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가 도심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현장 방문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임관만)는 26일 도심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과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제물포역 주변 역세권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 다양한 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제물포역 주변 사업대상지를 돌아보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민원 해소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 현장도 방문해 장마철을 맞아 빗물 처리, 지하굴착공사 안전확보, 주변 지역 원활한 교통확보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임관만 위원장은 "공사 현장은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와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연수구, 지역 노인복지관에 보리 기부

선학동 공한지 파종 수확물 400포

인천 연수구는 지난 25일 선학힐링텃밭에서 선학동 공한지에 파종한 보리 400포(총 800㎏)를 수확해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2015년부터 연수구는 선학동 공한지 약 4만㎡에 보리, 메밀 등 경관 작물을 파종해 도심 속 고향의 정취가 가득한 농촌 풍경을 만드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날 보리나눔행사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 및 사단법인농촌지도자 연수구연합회, 대한노인회 연수지회, 연수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총 18명이 함께 참여해 보리 수확과 기부의 기쁨을 나눴다.

연수구는 방치된 공한지에 봄에는 보리밭을, 가을에는 메밀밭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고 매년 나눔 실천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연수구는 2023년 연수 어반가든 농작물 나눔 프로젝트 총 9회로 송도석산텃밭, 선학힐링텃밭 내 직영텃밭에서 수확한 열무, 상추 등 농작물 약 426㎏도 지역 내 복지관과 경로당에 기부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선학동 보리가꾸기사업이 일회성 농촌경관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매년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이어져 기쁘다."라며, "앞으로 선학동 보리밭에서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농업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연수구 도시텃밭과 보리밭을 선진적인 농업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연수구노인복지관
연수 어반가든 시즌 프로젝트
2023년 선학동 공한지 보리 수확물 나눔식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연수구가 선학동 공한지 파종 보리를 수확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사진=인천연수구 제공)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인천 서구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입지 선정에 본격 돌입한다.

서구는 240톤/일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120톤/일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자원 선별을 위한 220톤/일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시설을 갖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19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구는 지난 1월 주민대표,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총2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했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서구 전지역에 대하여 10개월간 진행되며, 입지현황 및 생활폐기물 발생특성·현황조사,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별 운영 중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한 입지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김용식 기자 kangn6040@naver.com

중구, 동 주민자율방역단 활성화

50여 명 단원 다짐대회

인천 중구는 모기 등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해 지난 23일 제2청 대회의실에서 '동 주민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한 다짐 대회'를 열고 민·관 방역 공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다짐 대회는 민관 협력을 통한 물 샐 틈 없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으로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을 포함해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영종·용유 지역 4개 동 30여 명의 주민자율방역단원이 참석, 방역 활동의 의지를 다지고, 안전한 방역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중구 보건소와 주민자율방역단은 대상지 공조 체계를 구축, 마을 구석구석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해왔다. 올해 역시 주민자율방역단은 관내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으로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에 빈틈없이 대처할 방침이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편집=정구철 기자

강화군, 군민 힐링공간 '남산 쉼터' 9월 준공

야외 운동기구 4개 등 설치

인천 강화군은 남산 인근 도로 확장으로 인해 철거된 소공원을 대체할 「남산 쉼터」가 합일초교 인근에 조성된다고 26일 밝혔다.

철거된 소공원은 오랜 세월 인근 주민들이 애용하던 곳으로 야외 운동기구, 녹지공간 등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던 곳으로, 철거되자 주민들은 군에 대체 소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군은 군비 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퍼걸러 1개, 등의자 10개, 야외 운동기구 4개를 설치하고, 녹지공간으로 관목 660주, 교목 20주를 식재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예정이다. 야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남산 쉼터는 '세대공감 쉼터'. 콘셉트로 낮에는 해와 함께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고 퍼걸러 안에서 휴식할 수 있으며, 밤에는 달과 함께 산책 의자에 앉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명상에 잠겨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새로 조성된 쉼터에서 군민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쉼터가 필요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